

[목회자 모임]  
구속의 하나님, 예수

2019. 9. 27. 이현래 목사

우리는 지금 새 언약의 사역자들이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아직도 교회에서 교역자들이 옛 언약의 사역자 역할을 하고 있는 데가 많다. 옛 언약은 참고 사항이고, 지금 우리는 새 언약의 사역자들이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저녁에 제자들을 모아 놓고 마지막 유월절을 하셨을 때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눅22:20)라고 말씀하셨다. 이것이 예레미야 31장에 나오는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렘31:31)고 하는 그 새 언약이고, 예수님은 새 언약의 성취이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요1:14) 이 말은 그 예레미야 31장에 있는 그 말씀의 성취이다.

예수님 이후에는 그 하나님의 모든 경륜은 새 언약에 있다. 새 언약의 중심은 무엇인가? 구속이다. 삼위일체적으로 생각한다면 성부 하나님은 창조를 주관하신 분이고, 성자 하나님은 구속을 주관하신 분이니까 1차적 창조는 성부 하나님의 관여이고, 2차적 창조는 성자 하나님께서 관여한 일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도 아주 당연한 일이다.

예수님의 구속 사역은 제2의 창조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창조가 사탄의 방해로 인해서 지금 실종된 상태이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겨우 이제 관여가 되어서 흘러 왔지만 사실은 그 속에 아브라함을 불러내어 예수에게로 이끌어오는 그것이 중요한 문제이지 그 외의 문제는 중요하지 않다고 할 수 없지만 새 언약으로 오는 경륜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요 1:1) 그것은 예수를 이야기한 말이다. 태초에 계신 말씀은 성자를 가리킨다. 우리는 지금 새 언약의 사역자들이다. 그리고 새 언약의 중심은 구속이다. 원위치로 되돌리는 것이다.

하나님이 창조할 때는 분명히 목적이 있고 용도가 있기 때문에 사람을 창조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형상화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생명을 생산하는 일이다. 창세기 1장에서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창1:26) 그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형상화 한다는 말이니까 사람을 통해서 형상화 한다는 뜻이다. 하나님을 나타낸다는 뜻이다.

그런데 2장에 가서는 같은 환경에서 1장에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창1:2) 했던 것처럼 2장에서는 아직 경작할 사람이 없어서 땅에서는 안개만 올라오고 있었

다. 그때 이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산 혼에 되게 했다는 것이다.

비슷한 것인데 단계가 다르고, 경륜이 조금 다르게 된 것 뿐이다. 흙으로 지은 것은 하나님은 농부시라는 뜻이다. 아담을 지으신 후에 동산에 두시고 첫 번째 한 사명이 네가 동산을 지키고 다스리라는 것이다. 이것은 경작하라는 뜻이다. 그것은 하나님과 사람의 영역을 개발하라는 것이다. 하나님은 씨가 되고, 사람은 밭이 되어서 거기서 하나님의 생명을 생산해 낸다는 뜻이다.

이것이 둘을 합하면 창세기 1장에서는 형상화 한다는 것이고, 2장에 오면 생명을 생산한다는 뜻이다. 우리가 흙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밭이다. 사람은 무슨 씨를 받느냐에 따라 밭이 된다. 콩을 받으면 콩밭이 되고, 옥수수를 받으면 옥수수 밭이 되는 것이 사람이다. 자기 자신에게는 아무것도 없다. 이것도 될 수 있고 저것도 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사람이다.

그런데 이것을 떠나서 아담이 어떻게 되었는가? 창세기 3장 이후로 아담은 계속 자기 길로 가서 결국 바벨로 가게 된다. 가는 과정을 보게 되면 가인과 아벨이 나온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다. 그런데 셋에 대해서는 아내와 동침하니까 셋을 낳았는데, 그것은 여호와께서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주었다고 말했다. 사실은 이것은 이상한 말이다. 왜냐하면 자기들끼리 낳아놓고 여호와께서 주었다고 하는데, 그것도 참 순진한 말이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창3:9)고 물었을 때,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창3:10)라는 것도 알고 보면 아주 원초적이고 순수한 말이다. 지금 세상 사람들에게 ‘네가 어디 있느냐?’고 하면 그렇게 대답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 다 자기가 뭐라고 대답하지 내가 두려워서 나무 뒤에 숨었다고 대답하지 않는다. 결국 지금 사람들은 알고 보면 자기가 뭐가 잘못되었는지 모르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뭐가 잘못되었는지 모르는 것이 사람이다. 결국은 잘못되었다고 하는 이 죄라는 생각은 일상생활에서 저지른 인간관계에서 나타나는 것을 보고 죄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구속 사역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야 하는 일이 아니다.

부흥회에 가면 첫째 날이 회개하는 날로 회개하라는데 뭘 회개할지를 모르겠더라. 예수께서 죄를 용서해 주었으니까 죄를 회개하라고 한다. 물론 털어서 먼지 안날 사람이 없고 다 죄가 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는다거나 내 대신 누가 죽는다는 것이 말이 안된다. 옆에서는 울고불고 하는데 나는 아무리 해도 그것이 안 되었다. 부흥회에 가면 그것이 큰 짐이었고, 죄 죄 할 때마다 아주 큰 짐이었다.

그렇다고 내가 백지처럼 깨끗한 사람인가? 그렇지 않다. 하지만 하나님 아들이 나를 위해서 희생제물이 될 정도의 죄는 아니라는 말이다. 그래서 교회가 죄 죄 하는 문제가 굉장히 애매하

다. 우리나라에서 죄 사함의 복음이 와서 한번 지각변동이 일어난 적이 있다. 무슨 죄인지 모르기 때문이다. 그런데 성경을 가르치고 사람은 죄를 짓지 않았느냐? 사람이 죄인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변동을 일으켜 땅을 뒤집어 놓았다. 그것이 구원파 사건이다.

구원파의 근원은 미국의 침례교회이다. 그 침례교회에서는 아예 당연히 그런 죄에 관한 문제가 A, B, C 과목이다. 친구 목사 한분이 미국에서 30년 살다 왔다. 미국 교회는 공간이 많으니까 소수 민족에게 빌려준다고 한다. 한국인 교회도 있고 필리핀 사람 교회도 있는데 한국인 교회 목회를 했다.

침례교회에서는 아침에 성경 공부에 참여한 사람만 그 교회 교인이라고 한다. 대 집회 때는 아무나 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아침 성경공부에서는 그런 교리적인 문제를 철저히 공부를 하고 올라오는 것이다. 천주교에서 학습을 받고 영세를 받으려면 적어도 6개월 동안의 교육과정이 필요하다. 그렇게 영세명을 받게 되어 천주교인이 된다.

마찬가지로 미국 침례교에서는 아침 첫 시간에 성경공부를 해야 비로소 침례 교인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그것이 없었기 때문에 갑자기 들어와서 죄를 사함 받았느냐? 죄 사함 복음이 들어와서 제일 요동이 많은 것이 장로교이다. 지금 죽어도 천당 갈 자신이 있느냐고 물으면 아무도 대답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것을 누가 아는가? 하나님이 아실 일이고 죽어봐야 알 일이지 그것을 지금 사람이 어떻게 아느냐고 대답을 했는데, 이러다가 당해서 엄청나게 요동이 일어났다. 지금도 물론 있다.

이것이 모두 하나님의 경륜에 초점이 맞지 않기 때문인 것 같다. 원죄에 관해서 천주교의 말을 들어봐도 그렇고, 개신교의 말을 들어봐도 그렇고 아주 애매모호하다.

천주교에서는 거룩함과 의로움을 상실했다고 한다. 그것이 원죄라고 한다. 그것은 결과이지 그것이 어떻게 원죄이겠는가? 개신교에서는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것을 먹어서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것이 죄라고 한다. 불순종이 단순히 죄라면 회개하면 되지 않겠는가?

그런데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말한다. 다 회개한 사람이다. 마음으로는 내가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싶는데 내 속에 죄가 거한다고 한다.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롬7:24) 이 말이 나오게 되었다. 내 속에 거하는 죄는 실제라는 것이다. 원초부터 틀렸다. 애매하니까 회개를 어디로 할지 모른다. 어디로 회개를 하겠는가?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갈 데가 없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신 것도 구속을 위해 왔는데 어디로 구속을 하는 것인가? 구속을 하면 원위로 돌아가는 것이다. 예수님의 사역의 목표를 알려면 원죄를 알아야 한다.

나도 여러 가지로 고민했는데 결국 위치를 이탈한 것이었다. 다른 잘못된 것은 다음 일이고, 맨 처음에는 위치를 이탈한 것이다. 네가 하나님 같이 될 것이라는 이 말에 넘어간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 같이’라기 보다는 어쩌면 아담이 들을 때 신처럼 된다는 뜻이 아니겠는가? 천사가 그 말을 할 때, 아담이 하나님을 보았겠는가? 결국은 전능자라는 뜻일 것이다.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네가 신과 같이 될 것이다. 신은 천사로서는 자기 자신이다. 너는 이것을 먹으면 나처럼 죽지도 않고, 나처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에게 네가 제한을 받고 살 필요가 뭐가 있겠는가? 이런 말이다. 네가 자유롭게 살지 왜 제한을 받고 사느냐는 이 말 아니겠는가? 결국 그 제한을 벗어나려고 선악과를 먹은 것이다. 위치를 이탈했다.

예수님의 구속 사역은 위치를 이탈한 인간을 원위치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여러 가지 기사와 이적을 행하시고, 좋은 말씀도 하시고, 좋은 일도 하셨다. 다 은혜가 되었는데 어디로 돌아갈 데가 없다. 그 마지막이 십자가 사건이다.

나는 거기서 부딪힌 것이 무엇인가? 여호와께서 나에게 해주신 것은 참 많고 너무 역력하다. <주의 손에 이끌려>에 쓴다고 썼지만 다 쓰지 못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했는가를 쓰려고 썼다. 내가 뭐했는가를 쓰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했는가? 그것이 너무나 아깝기 때문에 그것을 꼭 남겨야 되겠기에 그것을 썼다.

예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해 주었는가? 이것이 안 되는 것이다. 예수님 사역의 핵심은 십자가 사건이다. 그가 죽으신 것은 그가 피를 흘리고 죽으신 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기 위해서다. 베드로의 사역의 핵심은 그의 피다. 보배로운 피, 그 피로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것이다.

바울 사역의 중심은 함께 죽고 함께 산다는 것이다. 로마서의 핵심은 믿음이 아니다.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것이 핵심이다. 그래서 로마서 안에서 제일 많이 쓰는 말이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이것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원점으로 돌아간 것이다. 죄라는 표현보다 ‘그리스도 안에’가 핵심이다.

8장에 오니까 그랬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롬8:1,2)고 한다. 얼마나 시원한가! 그런데 함께 죽는 것이 어떻게 함께 죽는 것인가? 이것이 애매하다. 어떻게 함께 죽는 것인가?

나는 옛날에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오다가 예수님이 죽어버리니까 나도 죽은 것이라고 생각했다. 제자들의 생각도 오로지 예수님만 기다리고 바라보고 살다가 예수님이 죽어버리니까 자기도 죽어버린 것 아니겠는가? 너무 허무하니까 고기 잡으러 간 것이다. 누구나 그렇지 않겠는가? 만

약에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랐다면 그가 죽으면 나도 죽은 것이다.

어떤 여자들은 남편을 너무 사랑했는데, 남편이 죽어버리면 자기가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렇게 이해했는데 어쩐지 시원치가 않다. 내가 그렇게 죽기까지 따라온 일도 없고, 나 때문에 죽어야 할 일도 없으니까 예수의 십자가 사역이 나에게서 말은 되지만 멀다.

그러므로 구약을 빙자해서 설명할 수밖에 없다. 번제단에서 제물이 드려지면 지성소에 있는 하나님은 백성의 죄를 용서하신다. 이것은 대속이다. 구속이 아니고 대속이다. 대신 속해준다는 것이다. 물질적인 세계에서는 가능하다. 내가 빛을 졌는데 내 친척 중에 누군가가 와서 갚아주었다면 이것이 대속이다. 이것은 가능하다.

그런데 이것은 인격적인 문제이다. 어떻게 대속이 되겠는가? 그것을 믿으라고 하니 대속이라는 것이 안 믿어진다. 그리고 내가 어디서 떨어진 줄 모르니까 그것이 안 믿어진다.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지만 나로서는 그렇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이 나에게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것이 내 문제였다. 그런데 알고 보면 이것이 예수 사역의 중심이고 정점이고 핵심이고 대답이다.

그분이 와서 우리를 어떻게 구속을 했는가? 예를 들어 잔치 집에 가서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 주어서 놀랐다. 이럴 수가 있는가했다. 또 다르게는 그분이 내 인생에 와서 내가 이만큼이라도 내가 잔치집이 되었다고 알았다.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이 눈을 뜰 때, 불가능한 일인데 그 일이 이루어졌다. 그런 것을 보면 우리가 놀라게 된다.

그런데 거기서 내가 얻은 것은 무엇인가? 나도 예수를 믿으니까 대낮처럼 밝아지는구나. 이런 것 아니겠는가. 설교가 다 그런 설교이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내놓고 보라.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다. 믿고 구해라. 그러면 눈이 열려진다고 하는 사역도 있다.

그런데 그런 사역은 되는 때가 있고 안 되는 때가 있다. 꼭 늘 되는 것이 아니다. 자기가 예수를 만난 지점에서 그 사람의 사역은 멈추게 된다. 기적에서 예수를 만난 사람은 평생 기적만 이야기한다. 우리나라의 유명한 순복음교회 조\*기 목사가 이제는 가발까지 쓰고 나왔다. 처음에 나는 누구인지 몰랐다. 비슷한데 아닌 것 같아서 누군가 했다. 들리는 말에 따르면 파킨슨병에 걸렸다고 하는데 힘이 많이 없어졌다. 그런데 설교 하는 것을 들으니 옛날과 내용은 똑같다. 옛날처럼 팔팔 뛰는 것은 없지만 조리 있게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한다. 그분은 기적에서 병 고치는데서 예수를 만난 것이다. 구속에서 만난 것이 아니다. 병 고치는데서 만난 것이다

그런데 예수를 정말로 전하려면 예수를 구속의 하나님을 전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분의 구속의 주님으로 세상에 왔기 때문이다. 예수의 증인들, 새 언약의 사역자들은 핵심이 바로 예수 사역

이 핵심이다.

여기서 나는 아주 애매한 입장에 처했다. 그것이 구약으로밖에는 설명이 안 되는 그런 입장에 처하게 되었다. 그러면 아무리 그동안 예수님 행적을 보고 좋은 것을 많이 얻고, 새로운 것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마지막 결정판에 가서 흐리멍텅해지면 아무것도 안 된다. 이것이 내 고민이고 짐이었다.

예수님의 충성, 사랑, 봉사, 이런 것을 본받으라고 죽으신 것이 아니다. 그것을 본받게 하려고 십자가에 죽으실 필요가 있겠는가? 사실은 그와 비슷한 것이 순교자들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순교냐? 뭐냐?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많다. 순교자와 뭐가 다른가? 순교도 똑같다. 고통당하는 것이 똑같다. 그런데 순교한 사람은 적어도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마27:46)하지 않는다. 감사하다고 한다. 스테반이 죽임을 당할 때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고 한다.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해도 너무 감사했던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으시면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하고 죽었다. 해같이 빛난 얼굴이 아니었다.

여기서 주의 깊게 보면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데, 내가 과연 그분의 구속에 확실하게 참여가 되었는가? 그 구속에 참여하는 것이 신약이다. 새 언약이다.

이번에 어떻게 이 말씀이 생각나게 되었는데 교회에서 말이 많다. 이럴 줄 몰랐다. 나는 찾다가 찾다가 너무 쉬운 자리를 찾았기 때문에 내가 처음 안 것처럼 이야기를 했다. 그랬더니 사람들 중에는 저 이야기를 왜 계속 저렇게 하느냐, 듣기 좋은 소리를 하지, 이런 사람이 있고, 뭔지 모르겠다는 사람이 있고, 여러 가지이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아주 좋은 것을 알게 되었다. 이것이 이런 문제가 있구나. 구속의 방해된 문제가 이런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뭐가 방해되는 문제인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마4:6)는 것이다. 순교자들보고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또 순교자들 자신도 그런 말을 할 필요도 없다. ‘감사합니다.’하고 죽었다. 그런데 예수에게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는 것이다.

이것을 근원을 따져서 올라가면 천사냐? 인간이냐? 이것이다. 천사가 하나님 아들이냐? 아니면 인간이 하나님 아들이냐? 그 전쟁이다. 우리가 인간 예수 편을 들지 않으면 천사의 편을 들게 되는 것이다.

사람이 창조되기 전에 천사는 이미 있었다. 어떻게 지어졌다는 말은 없지만 있었다. 그리고 에스겔서를 보면 굉장히 호화로운 아주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태어났다고 되어 있다. 우리가 있기 전에 있었던 것이니까 우리는 모른다. 그래서 하나님 아들이라고 했다.

제일 먼저 써진 욕기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왔다고 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이 다 돌아보았느냐고 물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것이 천사이다. 그리고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창6:2)고 했다. 그들에게서 낳은 것이 네피림이다. “용사라 고대에 명성이 있는(유명한) 사람들이었더라.”(창6:4)바로 장부요 용사요 유명한 자가 된 것이 선악과를 먹은 결과이다. 그렇게 되고 싶어서 먹은 것이다.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야 할 사람이 뭐가 되었는가? 네피림이 되었다. 사람은 다 네피림 되고 싶은 것이다. 네피림 되고 싶은 것이 인류의 소망이다. 어떤 분야에서든지 어떤 면에서든지 네피림이 되고 싶은 것이다.

유대인 사상에서는 유일신 사상이니까 여호와도 유일하신 분, 또 메시아도 유일한 분이라고 되어 있지만 희랍세계에오면 유명한 사람은 다 하나님아들이다.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는 말이 적중되려면 상당히 문제가 많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마4:6)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고 당연히 그렇게 한다. 왜냐하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니까 되겠는가?

거기에는 반대자들도 있었고, 상식자들도 있었고, 이방인들도 있었고,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거기 있었다. 내가 볼 때 제일 가슴 졸였던 사람들은 제자들이었다고 생각한다. 다른 사람들은 조롱하며 했으니까 술한잔 먹고 해도 되지만 제자들은 자기들의 운명과 관계된 문제이니까 외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속으로는 얼마나 갈망했겠는가? 거기서 뛰어 내린다면, 거기서 뛰어내릴 수만 있다면, ‘우리 주님 최고!’가 될 것인데, 그리고 온 세상이 굴복할 텐데, 얼마나 갈망했겠는가.

그런데 결국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마27:46)하고 죽고 말았다. 제자들의 낙심이 얼마나 컸겠는가? 다른 사람들은 모두 비웃고 갔고 조롱하고 그러면 그렇지 뭐 이렇게 하고 갔겠지만 제자들은 그것이 아니었다. 자기들의 모든 것이 걸려 있는 문제였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마4:6) 이 말은 뛰어내릴 수 있어야 하나님 아들이라는 뜻이다. 거기서도 뛰어내릴 수 있어야 하나님 아들이다. 그러면 거기서 뛰어내릴 수 있는 것은 누구이겠는가? 천사가 아니겠는가? 천사는 하나님 아들은 내 차지야, 무슨 숨이 코에 붙은 인간이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느냐는 것이다. 알고 보면 이 싸움이다.

우리는 일생동안 살면서 무엇과 싸우고 있는가? 천사냐? 인간이냐? 거기서 싸우고 있다. 평생 우리는 항상 천사의 성분이 없는 것이 늘 안타까운 일인 것이다. 하나님 믿으면 더욱더 그렇다. 교회 다니면 더욱더 그렇다. 그 성분이 없는 것이 한이다. 내속에 신의 성분이 조금만 있다 하더라도 내 영역이 얼마나 넓어지겠는가? 그런데 그것이 없다. 아무것도 없는 것이 흠이다.

이것을 볼 때 이것은 남의 문제가 아니고, 옛날 문제가 아니다. 우리들 문제이고 사역자들은 이 전쟁을 알고 사역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게 되어 버린다. 범벅이 되어서 뭐하는지 모르고 평생을 사역하게 된다.

사람을 어디로 이끌어 가는 것인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뛰어내리지 못하지만 그 사람이 하나님 아들이라는 것이다. 이것을 확실하게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 뛰어내리는 것이 하나님 아들이냐? 아니면 뛰어내리지 못하는 인간이 하나님 아들이냐? 이것이다.

하나님의 위임은 뛰어내리지 못하는 인간에게 주어진 것이지 천사에게 준 것이 아니다. 그런데 세상을 보라. 다 천사를 따라가려고 하지 숨이 코에 붙은 인간을 따라가려고 하겠는가? 그러므로 천국이 안 된다. 그렇게 해서 교회가 되겠는가? 다 천사를 따라가는데 그것이 교회가 되겠는가? 교회는 단지 여러 방면에서 부름 받은 사람들이다. 부름 받아온 사람들이다. 무엇 때문에 부름 받았는가? 이 전쟁을 위해서 부름 받아온 사람들이다.

그런데 우리가 천사를 부러워하고 있으면 이것이 전쟁이 되겠는가?

우리나라가 앞으로 북한과 전쟁이 난다면 북한체제가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국군에 들어있으면 그것이 전쟁이 되겠는가? 보나마나 패한다. 중국에서 국공문제가 있을 때, 미국에서 엄청나게 국민당 정부에 지원을 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총을 가지고 모택동에게 가버렸으니까 감당을 못했다. 그래서 장개석은 패망하고 물러나게 되었다. 월남전에 미국이 쏟아 부은 것이 얼마인가? 그런데 결국 무기가 다 월맹으로 가버린다. 월남은 미국이 패전한 최초의 나라이다.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것이다.

예수 이름 부른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예수를 정확하게 모르면 우리는 전쟁을 할 수 없다. 유혹이 굉장히 많다. 목회하러 나오니까 제일 부러운 것이 그것이다. 신적인 능력이 없는 것이 제일 문제였다. 전도가 바로 되는가? 안 된다. 그런데 병 고치는 것을 보니까 사람들이 벌떼처럼 날아온다. 나도 팔자에 없는 짓을 하려고 쫓아다녀 보았는데 도저히 안 되었다. 그래서 나는 실패자가 되고 말았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고 사람을 찾는다는 것을 알았다. 숨이 코에 붙은 인간, 십자가에 메달아 놓으면 뛰어내릴 수 없는 그 인간을 하나님이 찾고 있는 것이다. 그것을 알고 해방이 되었다. 아! 다른 것을 찾고 있구나.

예수께로 오는 노선은 전혀 다른 노선이다. 아담의 자손들은 처음에 네피림이 되었다. 창세기 1장이 왜곡된 것이다. 형상으로 지어진 것이 네피림이 되어 버렸다. 그 다음에 창세기 11장에 가면 모두 모여서 흠으로 벽돌을 만들어 버렸다. 흠에 씨를 뿌려야 열매가 날 것인데, 벽돌을 만들었으니 끝난 것이다. 벽돌로 성을 쌓았다는 것이 보통 문제가 아니다.

창세기 1,2 장에서 하나님이 필요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완전히 다 망가지고 말았다. 우리는 네피림을 보고 하나님 아들이라고 했다. 나쁜 것을 행한 것이 아니고 유명한 자들이다. 그 유명한 것을 보고 부러워했다. 유명한 것을 부러워해서 교회가 되겠는가? 안 된다.

새 예루살렘이 무엇이 유명한 것이 있는가? 거기는 없다. 어린양의 혼인잔치이다. 죽임을 당한 어린양의 혼인 잔치이다. 완전히 아이러니한 이야기이다. 누가 인봉한 책을 뚫 것인가? 갓 죽임 당한 어린양이라는 것이다. 하나님의 비밀은 누구한테 있는가? 유명한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갓 죽임당한 어린양에게 있다는 것이다.

나는 예수님께서서 사람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들이라는 이것이 핵심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어떻게 사람인데 뛰어내릴 수도 없는 인간인데, 하나님 아들이라고 할 수 있는가? 이것이다. 나를 하나님께로 데려갈 수 있는 사람. 자기 안에 나를 포함하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사람이다. 다른 것은 다 못해도 그것은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예수 없이는 하나님께로 갈수 없는 사람이다. 사도들이 길을 물었다. 어디로 가야 아버지 집으로 갑니까? **“내가 곧 길이요.”**(요14:6) 예수님 자신이 길이니까 그 안에 포함되지 않으면 길이 따로 없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요14:9)고 했다.

계속 제자들은 그렇게 묻고 있다. 길이 어디입니까?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좀 보여주십시오. 이러면 종교가 되는 것이다. 길이 따로 있고, 아버지 집이 따로 있으면 종교가 되는 것이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나, 나, 자기를 이야기하고 있다. 어디서 우리가 그분을 만나고 어디서 우리가 하나가 되겠는가? 어디서 'In christ'가 되겠는가. 어디 가서 내가 저분과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자리가 있겠는가? 그분 없이 내가 지도를 가지고 갈 수 있는 천국은 없다.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광야를 헤맸다. 길이 있으면 왜 헤매겠는가? 길이 없으니까 헤맸다. 요즘 사람들 말로 하면 길이 없으면 만들어야지 한다. 목표점을 알아야 만든다. 어디로 가는지 알아야 만들 것이 아니겠는가? 구약시대 사람들은 요즘 같은 기술이 있었으면 가나안 땅에 간다고 하고 그쪽으로 길을 냈으면 되었을 것인데,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은 길이 없었다.

여호와 자신이 길이였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누구인가? 여호와 자신이다. 그분이 길이였다. 그것이 없으면 길이 없다. 불기둥이 없고 구름기둥이 없으면 길이 없다. 광야에서 헤매다 죽는 것이다.

대영 박물관에 가니까 광야에서 헤매다 죽은 미이리가 있었다. 모래 속에 감추어져서 미이리가 되었는데 그것을 발굴해 놓았다. 인생이 그런 것이다. 자기 길인 줄 알고 가다가 모래에 덮여버

리면 죽는 것이다. 버나드쇼가 우물쭈물하다가 나 이럴 줄 알았다고 말했다.

요즘 세상 풍조라고 해야 하는지 모르겠는데, 참 안타까운 것이 있다. 결론은 아직 없다. 절대적인 것은 없다. 고정불변한 것은 없다는 것은 불교의 말이다. 지금 세상은 절대적인 것이 없다고 말한다. 우리는 과정을 거쳐 가는 것이다. 해보는 것이다. 해 보면서 길을 만들어 간다는 것이다. 어디로 간다는 것이 없다.

유럽 사회가 그 동안에 많은 것을 겪었다. 절대화해 놓으면 독재가 되니까 독재를 없앴다. 독재를 없애고 나니까 모든 것이 상대화 된다. 미국에서 가장 금지하는 것은 절대화시키는 것이다. 그것이 당연하다. 아담이 살면 절대화가 있으면 독재가 되어 버린다. 미국이 사람들이 살기가 좋다는 것이 절대화가 없으니까 각자 자기 소신껏 살면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도 그렇게 하면 된다는 사람들이 있다. 투표해서 교회를 만들 수 있는가? 투표해서 교회가 되겠는가? 투표로 교회를 만들 수 없다.

교회는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 구속을 받아서 되는 사회이다. 길이 분명히 정해졌다. 투표해서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다. 투표해서 교회가 된다면 그것은 구락부이다. 함께 즐기자는 것이다. 많은 사람이 가입할 수 있다. 테니스클럽, 축구클럽이면 많은 사람이 올 수 있다. 우리 교회도 교회는 나오지 않는데 축구클럽에 오는 사람들도 있다. 우리는 그런 것도 교회로 이끌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다수결이 교회가 아니다.

교회는 다수결이 아니다. 부르심이 있는 곳이다. 무엇 때문에 불렀는가? 목적이 있어서 불렀다. 그리고 목적지가 있으니까 가는 것이다. 우리는 목적지 없는 데를 더듬고 있는 것이 아니다. 교육을 그렇게 받으니까 어떤 절대적인 것을 싫어하는 것이 요즘세대이다. 절대적인 것이 있을 수 있는가? 그런 것은 없다는 것이다. 들어볼만 하니까 들어보지만 그렇다고 결론이 있는 것은 아니다. 아직은 모른다. 그러면 언제 알게 되겠는가? 과학은 끊임없이 연구하고 노력하고 그래서 무엇을 발명해나간다.

그런데 교회는 끊임없이 노력해서 무엇을 발굴해 나가는 것이 아니고, 이미 정해진 것이다. 창조는 정해진 것이다. 내가 있기 전에 이미 정해진 것이다. 구속도 마찬가지이다. 내가 있기 전에 구속의 하나님이 있었다.

예수는 왜 하나님인가? 구속의 하나님이다. 삼위일체적으로 말한다면 성부는 창조의 하나님이고, 성자는 구속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라는 말과 신이라는 말은 좀 다르다. 한자로 쓰면 똑같은데 의미가 좀 다르다. 그것이 혼동되니까 예수를 신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하나님이지만 신은 아니다.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요일5:20) 하나님 이라고 했지만 그것이 신이라는 말은 아니다.

우리는 새 언약의 사역자들이다. 이것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 교회가 아니다. 구락부밖에 안 된다. 좋은 사람들이 모여서 좋게 살 수 있다. 우리 교회도 그렇게 온 사람들이 많이 있다. 편하고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오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 잘못한다는 말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결국은 구속 안으로 들어와야 한다.

부름 받은 사람은 많지만 택함 받은 사람은 적다는 것이 다 그런 말이다. 왜 예복을 입지 않고 왔느냐? 다 같은 말이다. **“생명(천국)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마7:14)고 했다. 부름 받은 것과 택함 받은 것이 다르다는 말이다.

교회는 부름 받은 사람도 있지만 택함 받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계속 부름 받은 상태로 서는 교회라고 할 수 없다. 우리는 불러 왔으면 택함에 이르게 해야 한다. 불러 오는 것은 사람마다 다 다르다. 여러 가지 방면에서 온다. 결국은 어디서 왔든지 간에 어디로 가야 하는가? 구속 안으로 가야 한다.

동쪽 문으로 들어왔든지 서쪽 문으로 들어왔든지 들어오는 것은 다 방면이 다르지만 안에 들어오면 한 길이다. 새 예루살렘 성은 문이 열두 개이다. 사방에서 온다는 말이다. 나는 이런 이유로 교회를 왔고, 너는 저런 이유로 교회를 왔다. 놀기 좋아서 온 사람도 있고, 편해서 온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그대로 놔두면 이것은 교회가 되지 않는다. 이 사람들이 구속 안으로 들어와야 비로소 교회가 된다. 그래야 참된 하나가 되고, 연합이 되고, 건축이 된다. 우리는 벽돌 건축을 해도 안 되고, 네피림 형상이 되어도 안 된다.

사람은 참 이상하다. 그 얼굴에 뭔가 드러난다. 예를 들어 화가 나면 빨개진다. 사람은 그렇게 표현이 된다. 네피림이 되면 이것은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형상과는 다른 것이다. 그리고 벽돌이 되어버리면 성을 건축하는 데는 좋은데 농사를 지을 수 없다. 하나님의 생명을 거기 뿌려서 나오겠는가?

성경이 참 기가 막히게 써 있다. 아담의 길을 어떻게 이렇게 명백하게 써 놓았는지 모른다. 허물어져서 서로 말을 알아듣지 못하게 되었다고 한다. 요즘 지금 세상이 그렇다. 이야기해보면 그렇다고도 할 수도 있다고 하면 끝이다. 그렇다고 하면 되겠다고 하고 자기는 참여 하지 않는다. 그러면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말이 되어 버린다. 부모가 해도 안 된다. 그것은 아버지 생각이니까 그렇고, 그것은 어머니 생각이니까 그렇고, 내가 꼭 그렇게 따라가야 할 법이 있느냐고 하니까 밥 먹인 것이 헛일이다.

또 그렇다고 부모가 한 대로 한다고 해도 그것도 아니다. 세상을 보고 잘못이라고 할 수 없다. 세상이 그렇게 생겼는데 어찌겠는가? 세상은 그렇게 살고, 교회는 다르게 살아야 된다. 상당히 모순과 갈등이 있다. 그런데 세상에서 그렇게 살다보니 교회 와서도 그렇게 살려고 한다. 교회 와서도 투표하자, 이렇게 된다. 복음이 있는 사람이 복음을 전해야 한다. 투표해서 어디로 가자

고 하는 것은 교회가 아니다.

하여간 이번에 이 사건으로 인해서 많은 것을 알게 되었다. 왜 사람들이 뛰어내리지 못할 줄 알면서 왜 뛰어내려 보라고 했는가? 그 소리친 사람 중에 뛰어내릴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아무도 없다. 그런데 지금 기독교인들 중에서는 아니 충분히 뛰어내릴 수 있는데, 우리 죄를 위해서 뛰어내리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는가? 그랬으면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두 패로 갈라져서 난리난다. 그런데 사람이 거기 뛰어내릴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것이 진실한 것이다. 뛰어내릴 수 있는데 안 뛰어내렸다는 것은 주사를 맞아서 그렇다. 무슨 주사를 맞아서 그런 것이지 사람이 어떻게 뛰어내리겠는가? 뻔히 알면서 한 말이다.

제자들은 혹시나 그래도 제자들은 오병이어로 5천명을 먹일 때 보니까 뛰어내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그 나머지 사람들은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내가 교회에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어떤 사람은 사람을 십자가에 메달아 놓으면 죽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냐고 말한다. 그것을 문제 삼을 것이 뭐가 있느냐고 한다. 그 사람은 완전하게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해 본적이 없다는 것이다. 뛰어내릴 수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 된 것인가? 아니다. 그 사람도 다 가버렸다. 그 사람이 뛰어내리지 못한 예수를 보고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니이다.”**(요20:28)라고 했겠는가? 당연히 그렇지, 너나 나나 별거 있느냐고 하고 갔다. 뛰어내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주사 맞은 사람 외는 없다. 뻔히 못 뛰어내릴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 한 말이다.

그러면 그것이 누구의 말인가? 천사의 말이다. 네가 뛰어내리면 내가 굴복하겠다고 하지만 너는 못 뛰어내려, 너는 인생이잖아, 너는 숨이 코에 붙었잖아, 이렇게 조롱한 말이다. 우리가 여기서 승리를 해야 한다. 인생이지만 하나님 아들은 하나님을 표현한 것이 하나님 아들이지 뛰어내린다고 하나님 아들인가? 어린양이 어떻게 인봉한 책의 비밀을 떼겠는가? 어린양의 승리, 혼인잔치는 결국 승리이다. 어린양이 승리했다는 말이다. 혼인잔치는 전쟁에 이겨야 혼인잔치가 되지 전쟁에서 졌는데 무슨 혼인잔치가 되겠는가?

요한계시록을 말세의 비밀을 안다고 연구하고 찾는데 말세의 비밀은 무슨 비밀이 있는가? 말세의 비밀은 어린양이 승리했다는 이것이 비밀이다. 교회는 어린양의 승리를 만방에 선포하기 위해서 있다.

여기 모인 여러분들이 새 언약의 사역자들로서 예수 사역의 선봉이 설수 있기를 바란다. 오직

예수만 전한다. 그분 한분의 고기가 먹을 것이 무지무지 많다. 평생 먹어도 남는다. 내가 사랑 방에 '예수 식당'이라고 써놓았다. 예수를 재료로 해서 한 식당이라는 말이다. 소고기를 재료로 해서 만든 식당도 있고, 돼지고기를 재료로 해서 만든 식당도 있다. 교회는 예수 고기로 요리를 하는 곳이다. 여러 가지이다. 불고기도 있고 여러 가지로 다 있는데 재료는 다 예수이다.

무엇을 팔든지 무엇을 내놓든지 원재료는 다 같은 고기이다. 같은 재료이다. 사람 입맛 따라 이 사람에게는 이렇게 주고, 저 사람에게는 저렇게 주는 것이다. 그것을 잘하는 데가 유명한 식당이다. 그 요리를 잘하면 유명한 식당이 되어서 손님이 많아지고, 나처럼 이렇게 살코기를 던져 주면 식당이 잘 안 되는 것이다. 나도 꽤 요리를 많이 할 수 있는 사람인데, 지금 급하니까 그냥 살덩어리 던져주고 먹으라고 하니까 모두 못 먹어서 그러고 있다.

결국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먹기 좋은 요리로 만들어서 세상에 공급하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이 여러분 교회에서 그냥 나처럼 이러면 안 되니까 양념을 잘하고 요리를 잘해서 형제들이 잘 먹고 살찌는 사람들이 되도록 하면 좋겠다.

감사합니다.